

## 류경채 · 류훈 2인전

### 《공(空) - 존》



<공존-꿈>, 2012, 판넬에 혼합재료, 40x54x10cm

전시제목 : 류경채 · 류훈 2인전 《공(空) - 존》

전시기간 : 2025년 7월 9일(수) – 2025년 8월 9일(토)

전시장소 : 학교재 본관 (서울 종로구 삼청로 50)  
학교재 오룸 (online.hakgojae.com)

출 품 작 : 회화 15여 점, 조각 24여 점

○ 담 당 이주연 [juyeonlee@hakgojae.com](mailto:juyeonlee@hakgojae.com)

○ 문 의 02-720-1524~6

보도자료 [www.webhard.co.kr](http://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내 20250709-20250809\_류경채, 류훈 2인전\_공(空) - 존(Void and Presence)

## 1. 전시 개요

학고재는 7월 9일(수)부터 8월 9일(토)까지 류경채(1920-1995, 황해도 해주), 류훈(1954-2014, 서울) 2인전 《공(空) - 존》을 연다. 류경채 작가의 추상 회화 15여 점과 류훈 작가의 조각 작품 24여 점이 출품된다. 두 작가는 부자(父子) 관계이지만, 작업은 단순한 혈연을 넘어선다. 각기 다른 시대적 배경 속에서 구축한 조형 언어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감각과 현실을 반영했다. 이번 전시는 그 미묘한 차이 속에서 어떻게 공명과 교차가 이루어지는지를 조명한다.

## 2. 전시 주제

예술은 시대의 흔적을 품고, 작가는 그 시대를 관통하는 존재로서 질문을 던진다. 이 전시는 서로 다른 시간과 환경 속에서 예술적 사유를 확장해온 두 작가, 류경채와 류훈의 조형 언어를 통해 '존재'라는 보편적이면서 심연적인 주제를 가로지른다. 미적 응답과 조형적 전개를 통해 시대와 예술의 근본적인 연속성을 묻는다.

류경채는 해방 이후 한국 현대 미술의 태동기에 등장하여 자연과 인간, 삶의 조화를 탐구해왔다. 그의 작업은 단순한 풍경의 묘사에 머무르지 않는다. 동양적 자연관에 기반한 생성과 소멸, 순환의 질서를 담고 있다. 1949년 제1회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페림지 근방》으로 주목받았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된 이 작품은 류경채의 세계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작이다. 초기의 작품은 서정적 풍경에서 출발하였다. 1960년대 이후로 이어지는 비구상적 회화는 더 이상 보이는 자연이 아니라 '자연을 감각하는 인간의 내면'으로 이동한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모노톤의 색면 구성으로 구조미를 구축하며, 한국적 자연주의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석한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자연의 본질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예술적 실천으로 확장시켰다. 그의 작업은 존재를 감각하는 은밀한 통로이자 중재자로 기능한다. 절제된 질서 속에서 순환과 생성의 세계를 품는다.

반면 류훈은 보다 실험적이고 해체적인 조형 언어로 존재의 복합성과 심연을 파고들었다. 그는 고전적 조각의 핵심인 인체를 해체하고, 기하학적 형태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그가 익숙하게 봐왔던 아버지의 작업에서 중요한 요소였던 '구조'와 '구성'을 입체적으로 변주하였다. 익숙한 질서와 형식을 해체하고 낯설게 전복하는 시도를 이어갔다. 이러한 과정은 존재의 불안과 모순, 불완전성을 직면하게 만든다. 그의 작업에서 사용된 물질은 단순한 재료를 넘어 인간의 내면을 상징한다. 불완전하게 구성된 형태들은 구조적 긴장을 불러 일으키고, 파편화된 형상은 존재의 균열과 충돌을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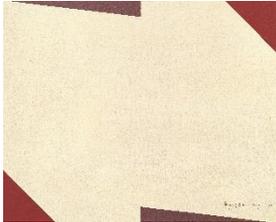
이는 류경채가 추구한 자연과 조화의 세계와는 상반된 방식이다. 류훈의 작업은 고요한 조화보다는 내적 충돌과 해체의 움직임에 향해 있다. 이는 곧 불완전한 자아를 지닌 현대인의 형상학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그는 본격적인 독립적 조각 세계를 구축해 나갔다.

이번 전시는 상반된 사유와 조형의 언어를 병치한다. 시대와 세대, 형식과 철학, 질서와 균열 사이의 다층적 관계를 재구성한다. 전시 제목의 '공(空)'은 단순한 비움을 넘어선다. 모든 생성의 가능성이 출발하는 자리를 의미하며, '존'은 그 비움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존재의 흔적이자 현재성의 무게를 상징한다. 류경채의 평면과 조각, 류훈의 입체와 구조물은 '공'의 공간 속에서 서로를 비추고 감싸 안는다. 시간과 기억, 육체와 영혼, 질서와 균열 사이에서 두 작가는 조형적 대화를 이어나간다.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존재란 무엇인가?' 라는 동일한 질문을 서로 다른 감각과 언어로 밀어붙였다는 데 있다.

류경채가 세계와 인간의 조화를 통해 존재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조형을 통해 질서를 구축했다면, 류훈은 그 조화가 불가능한 세계에서 존재의 불확실성을 드러내고, 질서를 해체함으로써 존재의 내면을 마주한다. 조형 언어의 방향은 다르지만, 두 작가는 형상 너머의 공백을 응시한다. 그 끝에는 모두 '살아 있음'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놓여 있다.

《공(空) - 존》은 단절이 아니라 변형된 계승이다. 세월의 밀도와 삶의 흔적이 응축되어 있다. 침묵 속의 대화이고, 비움 속의 충만함이다. 단순히 형상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세계와 인간, 자연과 존재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묻는 예술적 실천임을 일깨운다. 궤적을 따라가며 예술이 어떻게 시간과 세대를 관통해 계승되고 변주되는지를 체험하는 여정이 될 것이다.

### 3. 작품 소개



류경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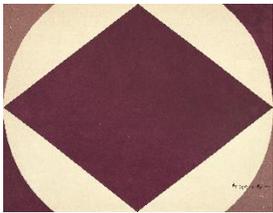
<날 '85-6>

1985

Oil on canvas

130x162cm

<날>, <염원> 시리즈는 류경채의 후기 작업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자 정점의 위치를 차지한다. '날'은 단순히 시간의 단위로서의 하루가 아니라, 존재의 시간과 순간의 축적, 생의 흐름을 담아낸 연작이다. 화면은 평면성과 공간감을 동시에 지닌다. 구체적인 형태는 사라지고, 화면을 나누는 수직, 수평의 선과 크고 작은 색면이 비대칭적으로 구성된다. 형상적 조각에서 출발해 서정적 추상으로 도달한 그의 조형 언어는 형태는 사라져도 기억과 감정이 화면 속에 끊임없이 흐르는 구조로 완성된다.



류경채

<염원(念願) '92-8>

1992

Oil on canvas

111.5x144cm

'염원'은 류경채의 내면적 소망을 시각화 했다. 단순한 추상에 머물지 않고, 동양적 순환의 질서를 담는다. 화면의 중심은 원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은 탄생과 소멸, 순환과 완전함을 상징한다.

여기에 교차하는 선과 색면들이 더해지며, 마치 만다라처럼 중심으로 수렴되는 동시에 외부로 확장되는 이중적인 공간감을 갖는다. 단순히 개인적인 바람을 넘어, 존재의 근원에 대한 깊은 사유이다. 모든 생명이 결국 하나의 원으로 회귀한다는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류경채

<축전(祝典) '89-8>

1989

Oil on canvas

162x130cm

<축전> 시리즈는 류경채의 작업 세계의 집약체이자 완성된 조형 언어를 보여주는 대표작이다. 자연과 인간, 삶과 죽음, 시작과 끝, 빛과 어둠의 순환을 축복하는 형상으로써 삶의 본질에 대한 긍정을 시각화 한다. 대칭적이지만 완벽 속의 불완전함, 질서 속의 미묘한 불균형을 담아냈다. 그는 이 시리즈를 통해 존재와 삶의 경이로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류훈  
<공존>  
1999  
Bronze  
60x60x60cm



류훈  
<공존>  
2009  
Bronze  
50x7x50cm



류훈  
<공존>  
2010  
Terracotta  
70x12x50cm

류훈의 <공존> 시리즈는 그의 조각 세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핵심 작업 중 하나다. 인간, 자연, 사물 간의 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 초기 작업은 비교적 직선적이고 기하학적인 구조였으나, 점차 곡선과 유기적인 형태로 변주된다. 기둥 형태의 수직성과 원형, 타원형의 부드러운 곡선이 만나면서 공간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구조를 만든다.

기둥은 존재를 지탱하는 축으로 기능하고, 덩어리는 세계와의 관계성을 상징한다. 주로 청동, 철, 스테인리스, 테라코타 등을 재료로 사용한다. 대체로 단단하면서도 물질적 무게감을 지니지만, 그 안에는 불완전함과 긴장감, 그리고 의도적인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이는 균형과 불균형, 안정과 불안정, 독립과 의존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를 시각화한 것이다. 특히 형태 간의 빈 공간은 작품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사이의 틈, 떠 있는 공간, 걸쳐진 형태는 비어 있지만 결코 공허하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관계의 여백이며, 존재 간의 대화와 긴장, 호흡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류훈은 “완전한 독립도 없고, 절대적인 의존도 없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존재하며, 긴장 속에서 균형을 이루고, 차이 속에서 조화를 찾는다.”고 설명했다. ‘공존’은 바로 이 세계관을 시각화한 조형적 선언이다. 인간과 자연, 사물과 공간, 서로 다른 가치와 존재들이 기대고 부딪히면서도 함께 존재하는 것. 그것이 공존이다. 따라서 그의 조각은 단순히 ‘고정된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되는 ‘관계적 현상’으로 작동한다.

#### 4. 작가 소개

류경채는 1920년 황해도 해주 출신으로 1995년에 작고했다. 1938년 전주 사범 재학 중 조선 미술전람회에 입선하며 입지를 굳혔다. 1941년 일본 도쿄로쿠인사화학교(綠陰社畫學校) 회화과를 졸업했다. 1949년 제1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았으며, 이후 국전 심사위원,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1955년 이화여대 교수로, 1961년부터 서울대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1957년 창작미술협회 창립에 참여하여 회장으로 역임했다. 1995년 작고 후 금관문화훈장을 수훈 했다. 대표작으로 《염원 95-2》(1995), 《축전 92-5》(1992), 《날 82-5》(1982), 《비원 80-2》(1980), 《상량의 날》(1968), 《계절 63-5》(1963), 《폐림지 근방》(1949) 등이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서울대학교미술관, 카이스트미술관, 성신여대중앙박물관 등에 작품이 소장 되어 있다.

류훈은 1954년 서울 출생으로 2014년 작고했다. 1973-77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학사, 1985년 동 대학원 석사를 졸업하였다. 같은 해 첫 개인전을 공간미술관에서 선보였다. 생전에 총 5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1987년부터 조각 및 시각예술 교수로 활동하며, 조각가이자 교육자로 일생을 살았다. 서울대 동문 그룹 서울조각회와 현대 공간회 등 그룹, 한국기초조형학회 등 단체를 중심으로 작품 활동을 펼쳤다. 인천대학교 조형연구소 자문위원 등 공공 조소 심의, 운영위원을 역임하며 지역 공공미술 발전에 이바지했다. 대표작으로 《무제》(1983), 《공존의 표상》(1988), 《형상》(1993), 《상》(1997), 《꿈》(2012), 《공존-꿈》(2013), 《공존》(2022) 등이 있다. 서울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시립대학교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으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대학교원공제회, 지하철건설본부, 포항제철 등 여러 기관에 공공 조형물을 남겼다.